

## 사교육비 결정요인 분석: 전업주부를 중심으로<sup>†</sup>

강성호<sup>1</sup> · 임병인<sup>2</sup>

<sup>1</sup>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 <sup>2</sup>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접수 2012년 4월 25일, 수정 2012년 5월 16일, 게재확정 2012년 5월 23일

### 요약

본 연구는 가계지출 부담을 주고 있는 사교육비의 증가원인을 여성 전업주부의 영향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주요 결론으로는 첫째, 사교육비 정의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효과를 살펴본 결과, 유형별 모형에 관계없이 여성전업주부는 가구의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5분위 소득계층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1분위를 제외하고는 2분위 이상 소득계층에서는 소득이 많을수록 가구의 교육비부담에 대한 전업주부 효과가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구유형을 근로자 가구와 비근로자 가구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사교육비 부담에 대한 전업주부 효과가 비근로자 가구보다 근로자 가구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규칙적으로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는 근로자 가구가 비근로자 가구에 비해 전업주부를 통해서 사교육비에 더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주요용어: 교육비, 사교육비, 전업주부.

### 1. 서론

우리나라는 사교육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지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심지어 과도한 교육비 부담에 대한 걱정이 결혼은 물론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얘기도 있고, 노후 대비 저축도 줄이게 한다. 그럼에도 가계의 교육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계층간 빈부격차, 세대간 부의 대물림 등이 교육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흔히 교육비 지출을 결정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고 알려져 있다. 교육에 대한 관심과 개인의 능력, 각종 사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적 능력 등이 그것이다. 최근 회자되고 있는 교육과 관련한 우스갯소리가 있다. ‘어머니의 정보력, 아버지의 무관심, 할아버지의 재력’이라는 말인데, 자녀에 대한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방안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희화화된 말이다. 이 같은 경구는 우리나라 자녀교육에 대한 단순한 풍자라고 보기에는 이미 교육문화의 한 양태로서 자리를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눈여겨 볼 문구는 바로 ‘어머니의 정보력’이라는 것인데, 이는 자녀교육에 대한 여성 전업주부의 영향이 상당히 큼을 시사해 주기 때문이다. 어머니를 전업주부로 한정짓는 이유는 정보력이란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고, 자녀학력 제고에 필요한 여러 유형의 인간적인 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시간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전업주부가 강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sup>†</sup> 본 연구결과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저자들의 소속기관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sup>1</sup> (135-81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4-15 국민연금강남회관 3층,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sup>2</sup> 교신저자: (361-763) 충북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52 (개신동),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E-mail: billforest@hanmail.net

본 연구에서는 전업주부를 취학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업주부가 자녀교육 혹은 가계의 교육비 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즉, 가구의 교육환경 뿐만 아니라 취학자녀를 둔 전업주부의 존재가 가구의 교육비 지출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계청 발표 <가계동향조사>로써 실증하는 것에 연구목적이 있다.

사교육비 관련 연구로는 여유진 등 (2007), 안중범과 전승훈 (2008), 윤행호와 김성준 (2009), 김희삼 (2009), 김희삼과 이삼호 (2008), 성낙일과 홍성우 (2008), 김호일과 전희주 (2010), 권혁철 (2010), 조장식 (2011), 김진영 (2011), 변윤연과 이광호 (2011) 등 매우 다양하게 수행된 바 있다. 여유진 등 (2007)와 안중범과 전승훈 (2008)은 각각 교육 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 교육에 따른 소득수준의 세대간 이전 등과 같이 부의 대물림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김희삼 (2009)은 교육을 통한 경제적 지위의 세대 간 이동성을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대학서열과 노동시장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로는 김진영 (2007), 김희삼과 이삼호 (2008) 등을 들 수 있다. 사교육비지출 증가가 추가적인 사회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연구로는 성낙일과 홍성우 (2008), 김진영 (2011) 등에서 수행된 바 있다. 한편, 권혁철 (2010)은 우리나라 가계지출 비중 추이에서 보건의료, 교양오락, 교통통신비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므로 실제적인 교육비 비중은 증가하지 않았으며, 교육비 부담이 과중하다는 일반적 인식은 왜곡된 정보의 영향 또는 착각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연구 중에서 본 연구와 유사하게 전업주부가 사교육비에 미치는 효과 혹은 사교육비에 대한 투자를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윤행호와 김성준 (2009)과 변윤연과 이광호 (2011) 등으로 한정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어 왔던 전업주부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판단 하에, 가구를 소득계층과 특성별로 구분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전업주부의 사교육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미시자료를 사용하지만 오랜 기간을 분석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그동안 거시자료를 통해서만 시계열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던 것에 비해 미시자료의 장점과 거시자료의 특징인 시계열 분석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둘째, 그 동안 말로만 무성하던 우리나라 교육문화(어머니의 정보력, 아버지의 무관심, 할아버지의 재력) 중 한 축인 어머니의 자녀교육에 대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서론에 이어 2절에서는 가구의 소비지출과 교육비 비중, 그리고 가구유형별 사교육비 지출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3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가계동향조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분석방법론에 대해 살펴본다. 4절에서는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사교육비 결정에 영향을 주는 전업주부 효과를 회귀추정방법을 통해 분석한다. 특히 가구의 사교육비 결정요인을 소득계층과 가구유형별로 구분하여 전업주부의 사교육비 지출 증가에의 효과를 비교분석한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 주요 분석결과들을 요약하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면서 결론을 맺는다.

## 2. 가구 소비지출과 사교육비 현황

### 2.1. 가구의 소비지출 및 교육비 지출 추이

교육비 지출과 가계부담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도시 근로자 가구 (2인 이상 가구)를 중심으로 '65년 이후부터 '08년까지 전체 가계에서 소비지출 항목별 변화추이와 교육비 부담 정도를 논의해본다. 이에 의하면, 10개의 소비지출 원천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는 권혁철 (2010)의 주장처럼 교육비 보다는 교통통신비로 나타나고 있다 (표 2.1 참조).

표 2.1 도시가구 소비지출 구성비 (2인 이상) (단위: %)

연도	소비지출	식료품	주거	광열·수도	가구집기·가사용품	의료 및 신발	보건의료	교육	교양오락	교통통신	기타소비지출
1965	100.0	63.4	2.1	7.1	1.1	6.3	1.3	4.9	1.6	2.3	10.0
1970	100.0	46.6	5.9	4.7	1.7	11.6	3.5	7.6	2.1	5.5	10.7
1975	100.0	48.8	2.7	6.5	4.4	9.0	4.4	7.3	1.9	4.6	10.4
1980	100.0	43.2	4.5	7.8	4.3	9.8	6.3	6.3	1.8	5.8	10.1
1985	100.0	37.5	5.0	7.5	4.7	7.6	5.5	7.8	3.5	6.5	14.4
1990	100.0	32.2	4.7	4.5	5.6	8.2	5.1	8.4	4.7	8.5	18.2
1995	100.0	29.0	3.8	4.1	4.7	7.7	4.7	10.0	5.3	11.3	19.4
2000	100.0	27.4	3.5	5.3	3.6	5.6	4.3	11.2	5.2	16.0	17.8
2005	100.0	26.4	3.4	4.9	4.1	5.3	4.9	11.8	4.9	17.3	16.9
2006	100.0	25.7	3.5	4.9	4.2	5.3	5.1	11.8	4.8	17.5	17.2
2007	100.0	25.1	3.4	4.8	4.4	5.3	5.2	12.0	5.0	17.2	17.5
2007	100.0	25.6	3.4	4.9	4.3	5.1	5.1	12.6	4.7	16.9	17.3

자료: 통계청 (2008)의 <가계동향조사>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한국통계진흥원 (2009) 재인용

이는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되고 초고속 통신망 및 휴대전화 보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통신비 지출이 급격하게 커졌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마이카 시대가 되면서 교통비 지출도 많아졌던 이유도 있다. 그 결과 '65년 2.3%였던 교통통신비 지출 비중이 '08년 16.9%로 7배 이상 높아졌고, 가계의 소비지출 분야 가운데 증가 속도와 폭이 가장 빠르고 크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동통신 서비스 확대와 이동전화 기술 진보에 맞춰 교통통신비 지출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88년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생활보호제도에서 '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의 확대개편, '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 등으로 가계의 사회보험료 부담과 세금납부액의 비중도 증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80년까지 10% 안팎에 머물렀던 도시근로자 가구의 기타 소비지출 비중은 '80년대 후반부터 급증했으며 '08년 현재 17.3%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교육비 지출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65년 4.9%였던 도시근로자 가구의 교육비 지출 비중은 '95년 10%대로 증가한데 이어 '08년 현재 12.6%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 가계의 교육비 지출 비중은 꾸준히 높아져 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2.1 참조). 이러한 교육비 지출 비중은 2008년 기준으로 주거 (3.4%), 광열수도 (4.9%), 가구집기·가사용품 (4.3%) 구입비 등 주거 및 살림과 직결된 세 분야의 지출 비중을 합친 것과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여러 정책을 펴왔음에도 실효성이 크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우리가 교육비에 주목하는 이유로는 교육비의 증가자체가 주요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보다 주목할 점은 교육비 지출의 대부분이 취약계층이 있는 가구에 집중되므로 일시적으로 특정 가구의 소비패턴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교통통신과 기타소비지출은 가구 지출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모든 가구에 평균적으로 적용되는 소비지출항목이므로 교육비의 사회적 문제와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 2.2. 사교육비 관련 기초통계 및 변화추이

여기서는 가구형태별 (맞벌이, 홀벌이), 가구유형별 (근로자, 비근로자), 소득계층별로 구분하여 각 집단별 사교육비 수준과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해당 가구특성별 분석에 앞서 가구의 연도별 기초통계 현황을 살펴보면, 표 2.2와 같다. 1998년 이후 사교육비, 경상소득, 소비지출을 살펴보면 연도별도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다른 지출과 비교한 상대적 비율인 사교육비 부담을 분석한 결과, 2009년 이전까지는 사교육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998년 이후 가구의 일반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표 2.3 참조), 고령화 추세로 인한 여성 가구주의 증가로 남성가구주 비율은 감소하는 추이를, 가구주 연령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구주 교육수준은 가구주의 고령화 영향으로 다소 떨어지는 형태를, 전업주부 비율은 여성배우자의

경제활동비율 증가로 줄어드는 형태를 보였다. 가구원수는 핵가족화 및 출산율 저하로 인해 감소추세를, 취학자녀는 증가하다가 정체하고 있으며, 주택보유율은 다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로자 가구의 비중은 2000년대 초반을 전후하여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으로 가구일반 현황을 정리해보면, 가구주 연령은 49.9세, 고등학교 이상 학력을 가진 가구주 비율은 73.4%로 나타났다. 전업주부 존재 비율은 52.1%, 가구원수는 2.84명, 취학자녀수는 0.07명, 주택보유비율은 66.2%, 근로자 가구 비율은 57.1%로 조사되었다.

표 2.2 연도별 가구 사교육비 및 소득·소비지출 추이

구분	사교육비 <sup>1)</sup>	가구경상소득 (천원)	가구소비지출 (사교육비제외, 천원)	구분	사교육비 <sup>1)</sup>	가구경상소득 (천원)	가구소비지출 (사교육비제외, 천원)
1998 평균	69	1,870	1,115	2005 평균	131	2,779	1,750
1998 빈도	10,301	10,301	10,301	2005 빈도	11,367	11,367	11,367
1999 평균	75	1,927	1,268	2006 평균	115	2,624	1,643
1999 빈도	9,977	9,977	9,977	2006 빈도	12,458	12,458	12,458
2000 평균	90	2,098	1,403	2007 평균	121	2,746	1,694
2000 빈도	6,413	6,413	6,413	2007 빈도	11,040	11,040	11,040
2001 평균	100	2,296	1,510	2008 평균	136	2,852	1,728
2001 빈도	6,349	6,349	6,349	2008 빈도	11,012	11,012	11,012
2002 평균	107	2,467	1,571	2009 평균	142	2,876	1,750
2002 빈도	6,121	6,121	6,121	2009 빈도	10,881	10,881	10,881
2003 평균	113	2,534	1,595	2010 평균	142	3,052	1,869
2003 빈도	9,575	9,575	9,575	2010 빈도	10,667	10,667	10,667
2004 평균	122	2,680	1,683				
2004 빈도	9,159	9,159	9,159				

주: 1) 가구 사교육비는 '학원 및 보습교육비(성인미포함)'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98~'10년 연간자료 (raw data)를 활용하여 산출 (이하 표 2.7까지 동일)

표 2.3 연도별 가구일반 현황 추이

구분	빈도 (가구)	가구주			가구원수 (명)	취학자녀 (명)	주택보유율 (%)	가구형태 (%) <sup>3)</sup>	전업주부 (%) <sup>4)</sup>	
		성 <sup>1)</sup> (%)	연령(세)	교육 <sup>2)</sup> (%)						
1998	(10,301)	0.85	42.32	0.77	3.62	0.04	0.61	0.58	(8,346)	0.64
1999	(9,977)	0.83	43.31	0.76	3.59	0.05	0.62	0.57	(7,780)	0.64
2000	(6,413)	0.83	44.06	0.76	3.53	0.05	0.63	0.57	(4,948)	0.62
2001	(6,349)	0.81	44.72	0.76	3.49	0.07	0.62	0.56	(4,887)	0.6
2002	(6,121)	0.81	45.26	0.76	3.42	0.06	0.63	0.56	(4,689)	0.59
2003	(9,575)	0.83	45.32	0.75	3.45	0.07	0.65	0.58	(7,502)	0.56
2004	(9,159)	0.81	46.18	0.74	3.39	0.08	0.67	0.59	(7,044)	0.57
2005	(11,367)	0.81	46.72	0.75	3.35	0.07	0.67	0.58	(8,609)	0.56
2006	(12,458)	0.73	48.36	0.71	2.94	0.08	0.64	0.56	(7,941)	0.56
2007	(11,040)	0.72	49.1	0.71	2.88	0.08	0.64	0.55	(6,822)	0.56
2008	(11,012)	0.72	49.44	0.72	2.86	0.08	0.65	0.55	(6,604)	0.56
2009	(10,881)	0.72	49.65	0.73	2.86	0.08	0.66	0.56	(6,697)	0.53
2010	(10,667)	0.72	49.88	0.73	2.84	0.07	0.66	0.57	(6,600)	0.52

주: 1) 가구주 성은 남성 비율임, 2) 가구주교육수준은 가구주가 고등학교 학업이상인 가구 비율임,

3) 가구형태는근로자 가구비율임, 4) 전업주부비율은 취학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여성 전업주부 존재 비율임.

따라서 빈도수도 다른 변수와 다르며, ( )안은 취학자녀 있는 가구 빈도임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룰 변수들, 즉 전업주부 가구여부와 취학자녀, 가구형태, 소득 계층과의 관계를 2010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4 참조). 취학자녀여부와 전업주부여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취학자녀가 존재하는 가구에서 전업주부가 존재하는 경우는 36.3%로

취학자녀가 없는 가구에서 전업주부가 존재하는 경우인 53.1%에 비해 16.8%p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히려 취학자녀가 없는 가구에서 전업주부 가구 비율이 높은 것은 고령가구 비중이 높거나 여성배우자가 비경제활동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 기준으로 전체가구의 노인가구 비율은 16.6%이나, 취학자녀가 없는 가구 중 노인가구 비율은 17.6%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 가구에서 여성취업배우자 비율은 70.3%였으나, 취학자녀가 없는 가구에서 여성취업배우자 비율은 71.1%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취학자녀가 존재하는 가구에서 전업주부가구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전반적으로 젊은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져서 나타나는 현상 때문으로 이해된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취학자녀 가구에서의 전업주부 비율이 적다고 하더라도 전업주부가 사교육 활동을 선도하고 맞벌이 가구도 쫓아가는 행태를 보일 것이므로 전업주부의 사교육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가구형태와 전업주부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근로자 가구에서 전업주부가 있는 경우는 53.8%로 비근로자 가구에서 전업주부가 있는 경우인 51.0%보다 2.8%p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소득계층과 전업주부여부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1분위 소득계층 가구에서 전업주부가 있는 경우는 82.1%, 2분위는 67.6%, 3분위는 54.2%, 4분위는 44.2%, 5분위는 41.5%로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전업주부 존재 비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4 전업주부 가구 여부와 가구현황 (단위: 가구, %)

전업주부여부	구분	취학자녀여부		가구형태		소득계층 <sup>1)</sup>					전체
		없음	있음	비근로자	근로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없음	빈도	2,901	262	1,164	1,999	92	312	701	975	1,082	3,162
	비율	46.9	63.7	46.2	49.0	17.9	32.4	45.8	55.8	58.5	47.9
있음	빈도	3,288	149	1,356	2,081	421	650	828	772	766	3,437
	비율	53.1	36.3	53.8	51.0	82.1	67.6	54.2	44.2	41.5	52.1
전체	빈도	6,189	411	2,520	4,080	513	962	1,529	1,747	1,848	6,599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소득계층은 소득수준별로 20% 단위로 5개 분위로 구분하였으며, 1분위가 가장 저소득층임

이제 앞에서 언급한 가구특성별, 가구형태별 (맞벌이, 홀벌이), 가구유형별 (근로자, 비근로자), 소득계층별 (5분위)로 구분하여 각 집단별 사교육비 수준과 추이 분석을 통해 시계열적 변화흐름을 살펴본다. 먼저 취학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와 홀벌이 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참조). '10년 맞벌이 가구에서 월평균 537천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한 데 비해 홀벌이 가구에선 347천원을 가구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어 취학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맞벌이 가구의 월 사교육비는 홀벌이 가구에 비해 1.5배 (210천원 더 많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학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총교육비와 가구 사교육비에 대해 가구형태별 (홀벌이와 맞벌이)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해당 가구의 총교육비 추이는 연도별로 다소 변화를 보여왔지만 두 가구형태 모두 총교육비 및 사교육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현상은 홀벌이 가구에 비해 맞벌이 가구에서 사교육비 수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맞벌이 가구가 사교육비 수준도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취학자녀가 존재하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총교육비 대비 사교육비 비중을 살펴본 결과, 연도별로 등락하지만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비중 또한 홀벌이 가구에 비해 맞벌이 가구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8~'10년 13년 동안 홀벌이 가구의 평균 사교육비 비중은 28.2%, 맞벌이 가구의 평균 사교육비 비중은 32.0%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수치로 볼 때 홀벌이에 비해 맞벌이 가구에서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 크다는 것이고, 이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맞벌이 가구에서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맞벌이 가구가 일반적으로 홀벌이 가구에 비해 절대적인 가구소득 규모가 높기 때문에 가구소득 수준에 비례하여

표 2.5 맞벌이와 홀벌이 가구의 교육비<sup>1)</sup> 추이 (단위: 가구, 천원/월, %)

년도	가구빈도 (가구)		가구 총교육비			가구 사교육비 <sup>2)</sup>				
	홀벌이	맞벌이	홀벌이(A)	맞벌이(B)	B/A*100	홀벌이(a)	a/A*100	맞벌이(b)	b/B*100	b/a*100
1998	317	86	159	197	(124.2)	38	(23.9)	59	(29.6)	(153.8)
1999	365	81	165	155	(94.0)	30	(18.4)	37	(23.7)	(121.2)
2000	230	75	157	234	(148.9)	44	(27.8)	68	(29.0)	(155.5)
2001	264	103	191	194	(101.5)	49	(25.5)	62	(31.8)	(126.6)
2002	243	95	201	222	(110.5)	64	(31.9)	50	(22.7)	(78.7)
2003	305	250	210	185	(88.3)	69	(32.9)	52	(28.0)	(75.1)
2004	337	287	231	247	(107.0)	75	(32.3)	67	(27.2)	(90.3)
2005	401	328	210	229	(109.2)	63	(29.9)	85	(37.2)	(136.3)
2006	502	334	202	249	(123.5)	46	(22.8)	88	(35.1)	(190.5)
2007	451	292	210	271	(129.2)	58	(27.6)	97	(36.0)	(168.3)
2008	457	262	231	411	(177.7)	82	(35.4)	123	(29.9)	(150.2)
2009	425	263	317	448	(141.2)	94	(29.6)	119	(26.6)	(126.5)
2010	359	269	347	537	(154.8)	85	(24.5)	149	(27.7)	(174.8)
전체 <sup>3)</sup>	358	210	222	298	(134.2)	62	(28.2)	90	(32.0)	(145.7)

주: 1) 가구 총교육비 및 사교육비는 취학자녀가 존재하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

2) 사교육비는 '학원 및 보습교육비 (성인미포함)'를 의미함

3) 전체는 '98~'10년 동안의 단순평균임

교육비 수준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 소득 수준 및 동일 조건하에서 교육에 대한 관심도 (혹은 교육성향)가 홀벌이에 비해 맞벌이가 높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교육성향에 대해 소득증가 요인 및 기타 요인이 통제된 상태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가구의 교육성향은 전업주부에 의한 취학자녀 사교육비 증가와 관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구의 교육성향을 '전업주부의 취학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로 정의하여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2.6 소득계층별 가구 사교육비<sup>1)</sup> 증가 추이 분석 (단위: 월 천원, %)

년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빈도						
1998	20	23	17	40	70	42	403						
1999	12	(-39.2)	17	(-26.6)	17	(02.0)	22	(-44.9)	55	(-20.9)	32	(-25.6)	446
2000	9	(-28.9)	11	(-33.3)	25	(45.1)	33	(49.9)	108	(96.3)	50	(57.3)	305
2001	16	(89.9)	18	(59.8)	34	(32.9)	41	(26.3)	93	(-13.7)	52	(05.4)	367
2002	23	(39.2)	17	(-06.5)	30	(-09.7)	60	(46.2)	104	(11.1)	60	(15.0)	338
2003	10	(-54.4)	26	(49.9)	34	(13.2)	54	(-10.0)	116	(11.6)	61	(01.9)	556
2004	26	(150.0)	36	(40.2)	41	(20.1)	67	(24.0)	129	(11.6)	71	(16.1)	625
2005	20	(-23.2)	35	(-02.3)	44	(06.9)	98	(44.6)	117	(-09.2)	73	(02.4)	730
2006	15	(-26.2)	17	(-52.3)	54	(22.5)	64	(-34.5)	105	(-10.5)	63	(-14.1)	836
2007	7	(-53.6)	27	(60.3)	39	(-27.4)	69	(08.3)	128	(22.1)	73	(17.2)	743
2008	4	(-43.5)	22	(-17.3)	62	(58.4)	89	(28.1)	176	(37.6)	97	(31.9)	719
2009	16	(305.3)	32	(42.4)	64	(01.9)	111	(25.7)	174	(-01.3)	104	(06.9)	689
2010	1	(-94.3)	37	(19.0)	84	(32.0)	117	(04.9)	181	(04.3)	113	(08.6)	628
평균	14	(18.4)	26	(11.1)	44	(16.5)	68	(14.0)	121	(11.6)	70	(10.3)	7,385

주: 1) 사교육비는 '학원 및 보습교육비 (성인미포함)'를 의미함

다음에서는 취학자녀가 존재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 규모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5분위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증가추이를 살펴보았다 (표 2.6 참조). 5개의 소득계층 모두 13년 동안의 연평균 사교육비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전체 가구의 사교육비 증가율은 10.3%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1분위 소득계층에서의 증가율이 18.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분위 소득계층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예외로 하면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사교육비 증가율은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를 소득수준과 가구 사교육비의 두 변수만의 관계에서 보면,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전업주부의 사교육비 투자 효과'가 체감할 수 있음을 예상하게 하는 결과이다. 1분위 소득계층에서의 사교육비 증가율이 높다는 것을 저소득 가구에서도 공교육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간주할 수 있다면, 이는 교육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소득이 낮은 가구조차도 인식하여 사교육비가 일반적인 현상임을 시사해준다. 그러나 저소득층가구는 소득이 낮은 만큼 사교육비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구유형을 근로자 가구와 비근로자 가구로 구분하여 해당 가구유형에서의 사교육비 지출 규모의 차이를 살펴보았다(표 2.7 참조). '10년 기준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근로자 가구 기준으로 월 112천원, 비근로자 가구 기준으로 114천원으로 비근로자 가구가 월 2천원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평균 증가율 측면에서 보면, 각각 11.0%, 13.8%로 역시 비근로자구에서의 사교육비 증가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가구유형별 사교육비<sup>1)</sup> 증가 추이 분석 (단위: 월 천원, 가구, %)

년도	근로자 가구			비근로자 가구		
	평균	빈도	연간 증가율	평균	빈도	연간 증가율
1998	48	186		38	218	
1999	38	229	(-21.0)	25	218	(-34.0)
2000	69	162	(80.8)	28	143	(13.4)
2001	49	200	(-27.8)	56	166	(97.7)
2002	53	172	(08.0)	67	166	(20.5)
2003	71	294	(31.9)	51	262	(-24.0)
2004	75	331	(06.3)	67	294	(31.3)
2005	75	420	(-00.2)	70	310	(04.9)
2006	61	486	(-18.6)	65	349	(-07.5)
2007	75	405	(23.5)	71	338	(09.4)
2008	110	416	(46.6)	78	304	(10.2)
2009	99	402	(-10.5)	110	286	(40.8)
2010	112	375	(13.0)	114	253	(03.2)
평균	77	4,077	(11.0)	68	3,308	(13.8)

주: 1) 사교육비는 '학원 및 보습교육비(성인미포함)'를 의미함

### 3.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 3.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98~'10년 연간자료이며, 가구 교육비 항목을 살펴보면 표 3.1과 같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교육비 분류체계에 따르면, 교육비구성은 크게 2개로, 세분화하면 6개의 항목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즉, '정규성교육'과 '비정규성교육'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이를 다시 세분화하면, '정규성교육' 항목은 '초·중·고등학교 교육서비스'의 3개로, '비정규성교육' 항목은 취학자녀의 사교육비로 대표되는 '학원 및 보습교육비', '성인학원교육' 및 '기타교육'의 3개 항목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사교육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취학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지출되는 '학원 및 보습교육(성인미포함)' 비용을 '사교육비' 관련 항목으로 정의하였다. 이렇게 한 이유는 사교육비에 대한 정의가 연구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취학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취학자녀에게 지출되는 비정규성 교육비가 일반적인 사교육비 항목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표 3.1 교육비 지출 항목 구성

교육비 구성항목	내용
초등교육	정규교육기관 수행 교육 (유치원·초등학교교육서비스 지출 비용)
유치원	유치원에서 받는 교육 및 돌봄에 대한 비용
초등학교	초등학교 교육서비스에 대한 지출
중등교육	정규교육기관에서 수행하는 교육 (중·고등학교교육서비스 지출 비용)
중학교	중학교 교육서비스에 대한 지출
고등학교	고등학교 교육서비스에 대한 지출
고등교육	(고등교육법에 의해 지정) 2년제 대학이상 정규교육기관에서 교육서비스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
전문대학	4년제 미만 고등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서비스에 대한 지출
국공립대학	4년이상의 국공립고등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서비스에 대한 지출
사립대학	4년이상의 사립고등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서비스에 대한 지출
대학원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에서 받은 교육서비스에 대한 지출
학원 및 보습교육	정규교육기관 이외에 학원 교육서비스에 대한 지출
입시 및 보습	상급학교 또는 특수학교진학을 목적으로 한 학원 수강 (음악, 미술, 체육 제외)
음악학원	음악관련 학원 수강 (피아노학원, 바이올린, 첼로 등)
미술학원	미술학원 수강 (서예 등 포함)
운동학원	운동관련 교육비 (태권도, 유도, 축구 등)
직업준비학원	컴퓨터,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하여 학원에서 받은 교육
방문학습지	방문교사의 지도서비스가 병행되는 학습지를 구입한 경우
제험교육	사실학원 등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한 여행경비
기타학원교육비	위에 분류되지 않는 학생대상학원 및 시설에서 받은 교육
비정규성교육	학원의 개인으로 부터 받는 과외
성인학원교육	대학생 이상 일반인이 직업, 어학능력향상 등을 위해 수강하는 교육 (성인대상 개인과외도 포함)
성인직업학원	직업유지,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개인부담 또는 국가부담으로 컴퓨터, 미용, 조리학원 등에서 받은 교육에 대한 대가
외국어학원	외국어회화, 취업, 유학 등을 위한 시험성적제출 등을 위한 강습료
운동 및 교양교육	성인 대상의 예술 및 운동을 위한 강습에 따른 비용
기타교육	위의 교육에 포함되지 않는 교육훈련 및 연수서비스
학교보통교육비	방과후 학교에서 실행되는 교육에 대해 납입하는 비용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시설 및 등급이 분리되지 않는 기타정규학교에서 받은 교육서비스에 대한 지출
국내교육연수	정규교육기관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경비
국의연수비	3개월미만 해외연수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코드북을 활용하여 정리

본 연구에서는 '98년부터 '10년까지 충분한 시계열자료로 확보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의 가구 사교육비 변화 정도를 분석한다. 물론 교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적·경제적 변수도 기본적으로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전술하였듯이 사교육비는 가구의 '학원 및 보습교육 (성인미포함)'으로 정의하였지만, 사교육비 변수와 관련하여서는 단순히 통계의 존재여부로 하지 않고 총교육비, 정규교육비와 상대비중을 고려하여 가계지출에 부담을 줄 정도의 사교육비를 '사교육더미변수'로 정의한다. 왜냐하면 조사자료 상 사교육비가 존재하는 가구 중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의 사교육비가 상당히 많은 가구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가구를 사교육비 존재 가구로 정의하게 되면 사교육비 부담을 느끼지 않는 가구까지 분석에 포함하게 되어 유용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사교육비 존재여부로 하지 않고, 사교육비 부담을 느끼는 가구를 사교육비 존재가구로 정의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실증분석에서의 사교육비 변수는 '사교육비 존재가구'가 아니라 '사교육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가구'로 정의한 것이다. 또한 '사교육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가구'에 대한 정의를 보다 확대하여, 정규교육비의 50% 이상 또는 가구 교육비의 50% 이상인 가구로 구분하여 추가적으로 살펴본다.

3.2. 분석방법

우리나라 교육비 지출과다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전업주부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사교육비 지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전업주부의 존재여부가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하고 있는 전업주부 효과가 고려된 사교육비 결정 모형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dedu = f(y, c, H, hw, X)$$

단,  $dedu$  : 사교육비 더미 (사교육비로 인해 부담 느끼는 가구=1)



$y$ : 가구 소득,  $c$ : 가구소비 (사교육비 제외),  $H$ : 가구주 연령, 성, 교육수준  $hw$ : 전업주부 더미,  $X$ : 기타 지역더미, 시간추이 변수 등

본 연구에서는 로짓모형을 활용하여 사교육비 결정요인과 전업주부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분석대상은 취학아동이 있는 가구의 전업주부의 사교육비 투자 행태이며, 분석자료로는 '98~'10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통합 (pooling)하여 시계열로 구축한 자료이다.

표 3.2 실증분석에 사용된 변수 설명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종속변수	취학자녀 있는 가구 중 정규교육비≤사교육비인 가구	취학자녀 있는 가구 중 사교육비가 가구 총교육비의 50%이상	취학자녀 있는 가구 중 사교육비가 가구 정규 교육비의 50%이상
설명변수	가구경상소득, 가구소비지출 (사교육비제외), 가구주 연령, 가구주 교육더미 (고등학교 이상=1), 전업주부 존재여부 (존재=1), 가구원수, 취학자녀 수, 주택보유더미 (1=보유), 가구유형더미 (1=근로자, 0=비근로자), 시간추이변수 (연도)		

설명변수들에 대해 살펴보면, 가구소득은 가구의 경상소득으로 하였으며, 가구소비는 사교육비를 제외한 가구의 소비지출로 하였다. 소비지출 변수를 별도로 설정한 이유는 사교육비와 이를 제외한 기타지출은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가구주 변수는 가구주의 연령, 성, 교육수준 변수로 구성하고 있는데, 가구의 대표적 인적사항으로서 가구주 변수들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변수로는 가구원수, 취학자녀수, 주택보유여부, 가구유형 (근로자, 비근로자 가구로 구분)변수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교육비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시간추이변수를 추가하였다. 종속변수로 활용하고 있는 사교육비는 가구가 부담을 느끼는 사교육비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부담을 느끼는 정도'를 3가지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는 가구를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가구로 정의하여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즉, 모형 1에서는 취학자녀 있는 가구 중에서 정규교육비이상으로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를 사교육비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모형 2에서는 취학자녀 있는 가구 중에서 가구의 사교육비가 해당 가구 총교육비의 50%이상일 경우, 모형 3에서는 취학자녀 있는 가구 중에서 사교육비가 해당 가구 정규교육비의 50%이상일 경우 사교육비 부담을 느끼는 가구로 정의하였다. 이상에서 설명한 실증분석에 사용할 변수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3.2와 같다.

#### 4. 회귀추정 결과 분석

##### 4.1. 가구의 사교육비 결정에 대한 전업주부 효과: 전체 표본

본 절에서는 가구의 사교육비 결정요인과 여성 전업주부의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교육비에 대한 정의가 다양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분석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사교육비 정의를 중심으로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표 4.1 참조), '모형 1~3' 모두 여성 전업주부가 존재하는 가구가 존재하지 않는 가구에 비해 사교육비 부담이 높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전업주부가 사교육비를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를 승산비 (odds ratio)로 살펴보면, '모형 1'의 경우 전업주부가 있는 가구는 전업주부가 없는 가구에 비해 1.3배 이상 사교육비에 대해 더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형 2'는 1.1배, '모형 3'은 1.3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계동향조사> 자료에는 사교육비 증가로 기대하는 학업성취도 및 대학진학, 취업에 유리하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조사항목이 없어 사교육비로 인한 학업성취도 및 대학진학, 취업 제고

효과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승산비 (odds ratio) 및 로지스틱모형에 대한 설명은 전승훈 등 (2006), 강명옥 등 (2010), 홍종선과 정민섭 (2011), 강명옥과 신은영 (2012), Scrucca (2003), Lee와 Rhee (2003)를 참조하기 바란다. 한편, 잔차항 분석을 통해 회귀분석에서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선형성, 독립성, 등분산성 가정이 만족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다중공선분석 결과 모든 설명변수가 VIF가 10이하여서 설명변수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하 모든 회귀분석에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사교육비 결정에 대한 전업주부 효과 추정결과 (모형 1~3)

설명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가구경상소득	.653***	.071	1.922	.418***	.070	1.519	.624***	.071	1.866
가구소비지출	-1.649***	.089	.192	-1.281***	.086	.278	-1.551***	.088	.212
가구주 연령	.027***	.005	1.027	-.008	.005	.992	.013**	.005	1.013
가구주 학력	.394***	.077	1.483	.282***	.075	1.326	.443***	.078	1.557
전업주부 더미	.265***	.061	1.304	.117*	.060	1.124	.284***	.062	1.329
가구원수	-.254***	.038	.776	-.060	.037	.941	-.121***	.038	.886
취학자녀수	.177**	.078	1.193	-.169**	.074	.845	.110	.079	1.116
주택보유	-.298***	.081	.742	-.254***	.077	.775	-.287***	.083	.751
가구유형	-.193***	.064	.825	-.094	.062	.910	-.219***	.064	.803
시간추이변수	.029***	.009	1.030	.058***	.009	1.060	.027***	.009	1.027
상수항	12.972***	1.019	430244	11.648***	.992	114497	12.621***	1.022	302885

주 :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이하 동일)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98~'10년 연간자료 (raw data)를 활용하여 산출 (이하 표 4.5까지 동일)

다른 통제변수들에 대해 살펴보면, 가구경상소득은 세 모형 모두에서 유의하고 사교육비와 양 (+)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교육비를 제외한 가구소비지출은 음 (-)의 관계로 나타나 다른 지출이 증가하면 가구의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주연령은 증가할수록 사교육비에 대해 느끼는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가 고등학교 이상 학력인 경우가 이하에 비해 1.4배 이상 사교육비 부담이 높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는 가구원수는 증가할수록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취학자녀가 존재하는 경우는 취학자녀 없는 가구에 비해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높다고 느끼는 정도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모형 2'에서는 이와 상반되게 나타났고, '모형 3'에서는 부호가 양 (+)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주택을 보유할 경우 가구의 사교육비는 음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택보유와 자녀교육간에 대체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주택보유와 자녀교육 시점은 가구주 연령관점에서 보면, 유사한 시기로 판단되며 주택 보유에 지출비용이 크면 자녀 사교육비에 대한 지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유형별로 보면, 근로자 가구가 비근로자 가구에 비해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정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간추이변수는 양 (+)으로 나타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사교육비 부담수준을 높여왔음을 알 수 있다.

#### 4.2. 가구의 사교육비 결정에 대한 전업주부 효과: 소득계층별 구분

다음은 앞의 세 가지 모형에 대해 5분위 소득계층별로 구분하여 각 소득계층별로 전업주부의 사교육비 지출에 격차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저소득계층인 1분위 집단에서는 '모형 1~3' 모두에서 전업주부가 존재하는 가구가 존재하지 않는 가구에 비해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다른 소득계층과 반대로 추정되었다. 즉, 1분위 소득계층만 분리하여 분석하고 있는 표 4.2에서는 전업주부가 존재하는 가구가 존재하지 않는 가구에

비해 사교육비 부담을 느낄 확률이 각각 0.605배 (모형 1), 0.630배 (모형 2), 0.700배 (모형 3)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전업주부가 있는 저소득층에서는 오히려 사교육비를 부담될 정도로 지출하지 않고 다른 유형의 지출항목에 우선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저소득층의 경우 사교육비는 기본적인 소비지출 항목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 2분위부터 5분위 소득계층의 추정결과는 부록의 표 A.1 - 표 A.4를 참고하면 된다.

표 4.2 사교육비 결정에 대한 전업주부 효과 추정결과: 1분위 소득계층

설명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3		
	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가구경상소득	-.558**	.280	.572	-.365*	.192	.695	-.423	.268	.655
가구소비지출	-2.029***	.367	.131	-1.000***	.277	.368	-1.875***	.354	.153
가구주 연령	.037**	.019	1.038	.017	.014	1.017	.040**	.019	1.041
가구주 학력	.684**	.286	1.983	.046	.225	1.047	.601**	.281	1.825
전업주부 더미	-.503*	.299	.605	-.461*	.240	.630	-.357	.295	.700
가구원수	-.854***	.181	.426	-.255*	.155	.775	-.663***	.178	.515
취학자녀수	1.102**	.453	3.011	.900***	.336	2.459	1.129**	.465	3.092
주택보유	-.198	.315	.820	-.121	.238	.886	-.177	.310	.838
가구유형	-.078	.300	.925	.201	.239	1.223	-.243	.294	.784
시간추이변수	-.068	.050	.935	.003	.040	1.003	-.084*	.049	.919
상수항	36.768***	6.580	9.29e+15	17.784***	4.525	52899871	32.466***	6.261	1.25e+14

다음에서는 ‘모형 1~3’의 결과가 대부분 유사하므로 ‘모형 1’을 기준으로 2분위 이상 소득계층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2분위 소득계층 가구에서는 비전업주부 가구에 비해 전업주부의 사교육비 부담이 약 1.8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분위의 경우는 1.6배, 4분위는 1.4배, 5분위는 1.2배정도 전업주부가 비전업주부 가구에 비해 사교육비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업주부가 비전업주부 가구에 비해 사교육비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전업주부의 사교육비 부담은 체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2분위 소득계층 이상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사교육비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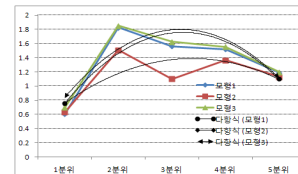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결정에의 전업주부 효과를 살펴보면, 표 4.3과 같다. 표 4.3의 오른쪽 그림은 승산비 (odds ratio)의 소득계층별로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2분위에서 사교육비 부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소득이 증가하면서 그 부담정도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모형 1~3 모두 유사하였다. 한편, 소득분위간 추세를 살펴보기 위해 그림에서 각 모형별로 2차함수 관계로 표현한 추세선 (다항식)을 제시하였다.

표 4.3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결정에 대한 전업주부 효과 추이

구분1)	모형 1 <sup>2)</sup>		모형 2 <sup>2)</sup>		모형 3 <sup>2)</sup>	
	계수	승산비	계수	승산비	계수	승산비
1분위	-.503*	.605	-.461*	.630	-.357	.700
2분위	.603***	1.827	.412**	1.510	.617***	1.853
3분위	.446***	1.562	.098	1.103	.485***	1.625
4분위	.418***	1.519	.310**	1.364	.442***	1.556
5분위	.172*	1.188	.121	1.129	.181*	1.198

주: 1) 소득분위는 '98~'10까지 각 연도별 소득순위 20%구간별로 하여 5개 분위로 구분한 것임 (연도별 소득분위 구분사항은 부표 참조).

2) 모형별 세부적인 분석결과는 부표를 참고하기 바람.



#### 4.3. 가구의 사교육비 결정에 대한 전업주부 효과: 근로자 가구와 비근로자 가구

다음으로 근로자 가구와 비근로자 가구로 구분하여 사교육비 부담에 대한 전업주부의 영향을 살펴 보았다. 이에 의하면, 비근로자 가구에 비해 근로자 가구에서 사교육비 부담에 대한 전업주부 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비근로자 가구에 비해 규칙적인 소득원이 있는 근로자 가구에서 전업주부가 사교육비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가구주가 근로자인 경우 그 전업주부는 사교육에 대한 투자를 비근로자 가구에 비해 안정적인 투자를 할 유인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소득, 소비, 교육수준, 가구원수, 주택보유여부, 시간추세 모두 전술한 분석들과 유사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모형 1~3의 경우도 유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4.4 사교육비 결정에 대한 전업주부 효과 추정결과: 근로자 가구

설명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가구경상소득	1.070***	.109	2.916	.735***	.107	2.086	1.038***	.109	2.824
가구소비지출	-2.043***	.129	.130	-1.700***	.125	.183	-1.961***	.128	.141
가구주 연령	.007	.008	1.007	-.023***	.007	.978	-.007	.008	.993
가구주 학력	.268**	.114	1.307	.247**	.112	1.281	.332***	.114	1.393
전업주부 더미	.289***	.081	1.335	.185**	.079	1.204	.298***	.081	1.347
가구원수	-.258***	.052	.773	-.035	.051	.965	-.109**	.052	.897
취학자녀수	.084	.103	1.088	-.217**	.099	.805	-.017	.103	.983
주택보유	-.448***	.116	.639	-.300***	.110	.741	-.354***	.118	.702
시간추이변수	.026**	.012	1.027	.068***	.012	1.070	.024*	.012	1.024
상수항	13.553***	1.438	769221	13.444***	1.412	689465	13.403***	1.444	661707

표 4.5 사교육비 결정에 대한 전업주부 효과 추정결과: 비근로자 가구

설명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가구경상소득	.370***	.095	1.448	.188**	.090	1.206	.338***	.094	1.402
가구소비지출	-1.295***	.125	.274	-.890***	.118	.410	-1.179***	.124	.307
가구주 연령	.042***	.008	1.043	.004	.007	1.004	.02***9	.008	1.030
가구주 학력	.465***	.107	1.592	.283***	.103	1.327	.499***	.107	1.647
전업주부 더미	.235**	.096	1.265	.020	.092	1.020	.264***	.097	1.301
가구원수	-.259***	.056	.772	-.092*	.055	.912	-.143***	.056	.867
취학자녀수	.284**	.121	1.328	-.117	.113	.890	.275**	.124	1.316
주택보유	-.173	.116	.841	-.218**	.108	.804	-.250**	.118	.779
시간추이변수	.031**	.014	1.032	.049***	.013	1.051	.029**	.014	1.029
상수항	10.966***	1.482	57879	9.015***	1.427	8223	10.427***	1.486	33767

## 5. 요약 및 시사점

지금까지 본 연구는 가구의 교육환경 뿐만 아니라 취학자녀를 둔 전업주부의 존재가 가구의 교육비 지출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계청 발표 <가계동향조사>로써 실증해보았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가구의 사교육비 결정요인과 여성 전업주부 영향과 관련하여, 세 가지 유형의 사교육비 정의를 중심으로 그 효과를 살펴본 결과, 모형에 관계없이 여성전업주부는 가구의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학자녀가 있는 전업주부의 존재가 자녀의 교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결국 사교육비를 부추기는 것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둘째, 가구를 5분위 소득계층별로 구분하여 여성 전업주부의 사교육비에의 영향정도를 분석한 결과,

1분위를 제외하고는 2분위 이상 소득계층에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가구의 사교육비 부담에 있어서 전업주부 효과가 다소 줄어드는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 전업주부는 사교육비를 부담될 정도로 지출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셋째, 가구유형을 근로자 가구와 비근로자 가구로 구분하여 사교육비 부담에 대한 전업주부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비근로자 가구에 비해 근로자 가구에서 사교육비 부담에 대한 전업주부 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비근로자 가구에 비해 규칙적인 소득원이 발생하는 근로자 가구에서 전업주부가 사교육비에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것을 보여준다. 즉, 가구가 근로자인 경우 그 전업주부는 사교육에 대한 투자를 비근로자 가구에 비해 안정적인 지출을 할 유인이 크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우리나라 사교육비의 증가에 있어서 여성 전업주부의 영향이 상당하고, 이러한 현상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나라 사교육비 문제는 상당 기간 사회적인 과제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록

표 A.1 소득계층별 (2분위) 사교육비 결정요인과 전업주부 효과 분석

설명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가구경상소득	-.241	.597	.786	1.066*	.559	2.904	.468	.596	1.597
가구소비지출	-2.096***	.301	.123	-1.848***	.283	.158	-1.887***	.293	.151
가구주 연령	.027**	.014	1.027	-.020	.012	.980	.025*	.014	1.025
가구주 학력	.312*	.180	1.366	.090	.167	1.094	.437**	.180	1.547
전업주부 더미	.603***	.178	1.827	.412**	.165	1.510	.617***	.180	1.853
가구원수	-.311***	.115	.733	-.256**	.113	.774	-.235**	.113	.790
취학자녀수	.664**	.269	1.943	-.006	.214	.994	.444*	.265	1.559
주택보유	-.206	.200	.814	-.089	.181	.914	-.248	.202	.780
가구유형	.097	.181	1.102	-.229	.168	.796	-.017	.181	.983
시간추이변수	.103***	.033	1.108	.079***	.029	1.082	.094***	.033	1.098
상수항	30.276***	8.495	1.40e+13	10.822	7.759	50107	17.671**	8.359	47238741

표 A.2 소득계층별 (3분위) 사교육비 결정요인과 전업주부 효과 분석

설명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가구경상소득	.041	.669	1.041	.257	.627	1.293	.207	.670	1.229
가구소비지출	-2.352***	.243	.095	-1.338***	.209	.262	-2.181***	.237	.113
가구주 연령	.025*	.013	1.025	-.007	.012	.993	.017	.013	1.018
가구주 학력	.518***	.167	1.678	.380**	.158	1.462	.555***	.166	1.742
전업주부 더미	.446***	.158	1.562	.098	.149	1.103	.485***	.159	1.625
가구원수	-.307***	.098	.735	-.154	.095	.858	-.205**	.098	.815
취학자녀수	.857***	.213	2.355	.443**	.173	1.557	.707***	.211	2.027
주택보유	-.495***	.188	.610	-.455***	.172	.635	-.462**	.189	.630
가구유형	-.156	.150	.856	.135	.140	1.144	-.147	.150	.864
시간추이변수	.069**	.031	1.071	.058**	.029	1.060	.057*	.031	1.058
상수항	30.643***	9.721	2.03e+13	14.271	9.033	1576518	26.360***	9.710	2.80e+11

표 A.3 소득계층별 (4분위) 사교육비 결정요인과 전업주부 효과 분석

설명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가구경상소득	.984	.636	2.675	1.541**	.668	4.671	1.105*	.627	3.020
가구소비지출	-2.066***	.215	.127	-2.439***	.236	.087	-1.789***	.206	.167
가구주 연령	.044***	.012	1.045	.022*	.012	1.022	.016	.012	1.016
가구주 학력	.172	.161	1.188	.514***	.172	1.672	.222	.159	1.248
전업주부 더미	.418***	.138	1.519	.310**	.142	1.364	.442***	.137	1.556
가구원수	-.308***	.080	.735	-.064	.083	.938	-.114	.078	.892
취학자녀수	.105	.173	1.111	-.525***	.186	.592	.060	.172	1.061
주택보유	-.398**	.166	.672	-.407**	.169	.666	-.393**	.167	.675
가구유형	-.048	.132	.953	.054	.136	1.056	-.085	.130	.918
시간추이변수	.042	.032	1.043	.082**	.034	1.085	.021	.032	1.021
상수항	13.091	8.970	484701.223	9.627	9.328	15166.167	8.779	8.840	6498.536

표 A.4 소득계층별 (5분위) 사교육비 결정요인과 전업주부 효과 분석

설명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가구경상소득	1.691***	.206	5.424	1.284***	.203	3.612	1.488***	.207	4.429
가구소비지출	-1.635***	.142	.195	-1.163***	.139	.313	-1.576***	.142	.207
가구주 연령	.003	.010	1.003	-.044***	.010	.957	-.020**	.010	.980
가구주 학력	.333*	.178	1.396	.089	.183	1.093	.388**	.178	1.474
전업주부 더미	.172*	.095	1.188	.121	.095	1.129	.181*	.096	1.198
가구원수	-.133**	.058	.875	.069	.058	1.071	.000	.059	1.000
취학자녀수	-.227*	.118	.797	-.575***	.125	.563	-.232**	.118	.793
주택보유	-.070	.165	.932	-.055	.161	.947	-.117	.170	.889
가구유형	-.686***	.113	.504	-.558***	.110	.572	-.647***	.116	.523
시간추이변수	-.009	.015	.991	.007	.016	1.007	-.006	.016	.994
상수항	-.939	2.688	.391	-.301	2.665	.740	2.222	2.728	9.221

## 참고문헌

- 강명욱, 김부용, 홍주희 (2010). 로지스틱모형에서 그래프를 이용한 회귀와 모형평가,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1**, 21-32.
- 강명욱, 신은영 (2012). 로지스틱회귀모형의 변수선택에서 로그-오즈 그래프를 통한 로그-밀도비 연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3**, 99-111.
- 권혁철 (2010). <색다른 통계로 보는 한국: 교육비 부담>, 자유기업원, 서울.
- 김진영 (2007). 대학서열과 노동시장. <한국경제의 분석>, **13**, 1-72.
- 김진영 (2011). 사교육 의존도의 심화와 교육기회 불균등문제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 <응용경제>, **13**, 191-239.
- 김호일, 전희주 (2010). 위계적 선형모형을 이용한 초등학교 학부모의 자녀의 학교여건 만족도 영향 분석 - 안양시 사례,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1**, 1009-1020.
- 김희삼 (2009). 한국의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과 교육의 역할. <제10회 한국노동패널학술회자료집>, 163-193.
- 김희삼, 이삼호 (2008). 고등교육의 서열과 노동시장의 선별. <제9회 한국노동패널학술회자료집>, 3-38.
- 변윤연, 이광호 (2011). 사교육 소비자로서 한국엄마의 자녀교육 특성에 나타난 청소년교육 연구. <청소년학연구>, **18**, 255-274.
- 성낙일, 홍성우 (2008). 우리나라 사교육비 결정요인 및 경감대책에 대한 실증분석. <응용경제>, **10**, 183-212.
- 안종범, 전승훈 (2008). 교육 및 소득수준의 세대간 이전. <재정학연구>, **1**, 119-142.
- 여유진, 김수정, 구인희, 김계연 (2007). <교육불평등과 민권의 대물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
- 윤형호, 김성준 (2009). 부의 대물림? 가계소득과 사교육이 자녀소득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논집>, **21**, 49-67.
- 전승훈, 임병인, 강성호 (2006). 개인연금 가입 결정 및 가입상태 변화 분석. <보험개발연구>, **17**, 137-167.
- 조장식 (2011). 학생정보를 이용한 대출 취업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2**, 849-856.
- 통계청 (2008).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대전.
- 통계청 (2011). <2010년 사교육비 조사결과>, 통계청, 대전.

- 한국통계진흥원 (2009). <2009 통계로 보는 대한민국>, 한국통계진흥원, 경기도 성남.
- 홍종선, 정민섭 (2011). 신용평가에서 로지스틱 회귀를 이용한 미결정자 추론,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2**, 149-157.
- Lee, J. and Rhee, S. (2003). Logistic model for normality by neural network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14**, 119-129.
- Scrucca, L. (2003). Graphics for studying logistics regression models. *Statistical Methods and Applications*, **11**, 371-394.

## An analysis on determinants of the private education expenses from a viewpoint of housewives<sup>†</sup>

Sung-ho Kang<sup>1</sup> · Byung In Lim<sup>2</sup>

<sup>1</sup>Associate research fellow, 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sup>2</sup>Associate Professo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25 April 2012, revised 16 May 2012, accepted 23 May 2012

### Abstract

Our study examines if the existence of a housewife in a family increases private education fees or not, which have continued to burden the family expenditure in Korea.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existence of a housewife in a family have an positive impact on the private education expenses, irrespective of the model. Second, the higher decile the less the effect of the housewife on the private education cost. However, the first decile is an exception. Third, the housewife effect of a laborer family is stronger than that of a non-laborer family. It implies that laborers who earn the income regularly expend more money on their children's private education than non-laborers.

*Keywords:* Education expenses, housewives, private education fees.

---

<sup>†</sup> This paper is a personal comment of authors.

<sup>1</sup> Associate research fellow, 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128, Dosan daero, Gangnam-Gu, Seoul 135-811, Korea.

<sup>2</sup>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Chungbuk 361-763, Korea. E-mail: billforest@hanmail.net